

광명~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8월 24일 이진연의원 등 15명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10.

9. 3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재정위원회 이진연 의원)

□ 주 문

- 「광명~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를 통과하는 광명~서울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동고속도로가 우리시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상동신도시 중심을 단절시키는 서울외곽 순환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하게됨.
- 따라서 부천 시민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쾌적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89만 시민의 뜻을 모아 동 고속도로 통과구간 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임.

3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광명~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

부천시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인구밀집도시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고강동 지역 인근에 소재한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소음 등 환경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,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.

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명~서울 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19.76km, 1조815억에 달하는 민자사업으로서, 이중 부천시를 통과하는 계획노선은 7.85km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같이 부천시를 양분화 함에 따라 생활권 단절로 인한 부천시민의 피해가 막중하다 할 것이다.

특히, 동부천IC 위치는 김포공항 소음 및 환경피해로 인한 이주민 500여 세대가 작동전원단지에 정착한 곳으로 IC 설치시 소음 및 환경오염으로 이중고통을 유발하여, 이주민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.

또한, 작동 전원단지 일원은 우리시의 마지막 남은 녹지축으로서 IC 설치시 부천시의 녹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며, 우리의 식수인 부천시 정수장의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.

2010년4월26일 부천시의회에서 노선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, 2010년7월20일 부천시 42개 시민·사회단체로 구성된 「광명~서울 고속도

로 노선변경 부천대책위원회」에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반대의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지금까지도 노선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천시를 무시한 것으로 89만 부천시민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.

이에,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광명~서울 고속도로 노선 및 동부천 IC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시계구간으로 변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.

만약 우리의 요구에 따른 변경 없이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89만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,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89만 시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.

2010년 월 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